



이름

학습일

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 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 하는  또는 매달  하는  을 의미한다.  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 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,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  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.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 에도 쓸 수 있도록    하는 것을 의미한다.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 제도인   는 경제 활동 시기에 소득의  부분을  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 을 지급하는 제도로서,  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. 수령하는 연금은   에  을  하여 결정된다.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 년일 때  %이고,  년 늘어날 때마다  %씩 증가하여 최대  %에 이르게 된다.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  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    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.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.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,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,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.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 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, A는 , B는  을 받을 것이다.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 이들이 소득이  이들에게서 일부를  받을 수 있다.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 이 있는 경우, 일정 연금액을  받는다.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의   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.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  를 지원하는 동시에, 가입자들 간의  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.

다음 페이지 ▶

한편 사적 연금 제도도 있는데, 이는  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.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   는 최소 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 세 이후부터  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 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 을 내야 하는데,     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 비율의  이 책정된다. 또한  에게는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 해 준다. 하지만  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 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,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  해야 한다.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.

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 , 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.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기초 연금 제도를  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, 대표적으로 사회 수당형, 최저 소득 보장형,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. 사회 수당형은   과   을 충족하면 별도의  및 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 방식이다.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 를 제거할 수 있지만, 취약 계층을  해 지원할 수 없어  이 낮고 막대한  이 필요하다. 최저 소득 보장형은  을 비롯한  및  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, 소득 인정액이  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  지원하는 형태이다.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  이 뛰어나다. 하지만 주택, 자동차,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  이 들 수 있고, 수급 여부

다음 페이지 ▶

와 수급액이  및  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 을 저해할 수 있다. 최저 보장 연금 형은   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    보다 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.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 만 조사하면 되므로   을 높일 수 있지만, 수급  가 많으면 소요  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 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 수준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.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,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  가 제기될 수 있고, 경제 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   이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  을 저해할 수 있다.

우리나라의 기초 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  이 최저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   에 가깝지만,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 연금을  하는 점에서    의 성격도 갖고 있다.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 고려하는데,   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. 또한  연금,  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 는  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
공적 연금 제도에  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 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, 사적 연금 제도에 대한 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 하는 사람들도 있다. 또한 기초 연금 제도의  이나  등에 대해서도  이 벌어지기도 한다.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 제도의  을 인식하고 있고,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 및  을 거듭하고 있다.